

# Strategy Idea



▲ 주식시황  
Analyst **정다이**  
02. 6098-6692  
daijeo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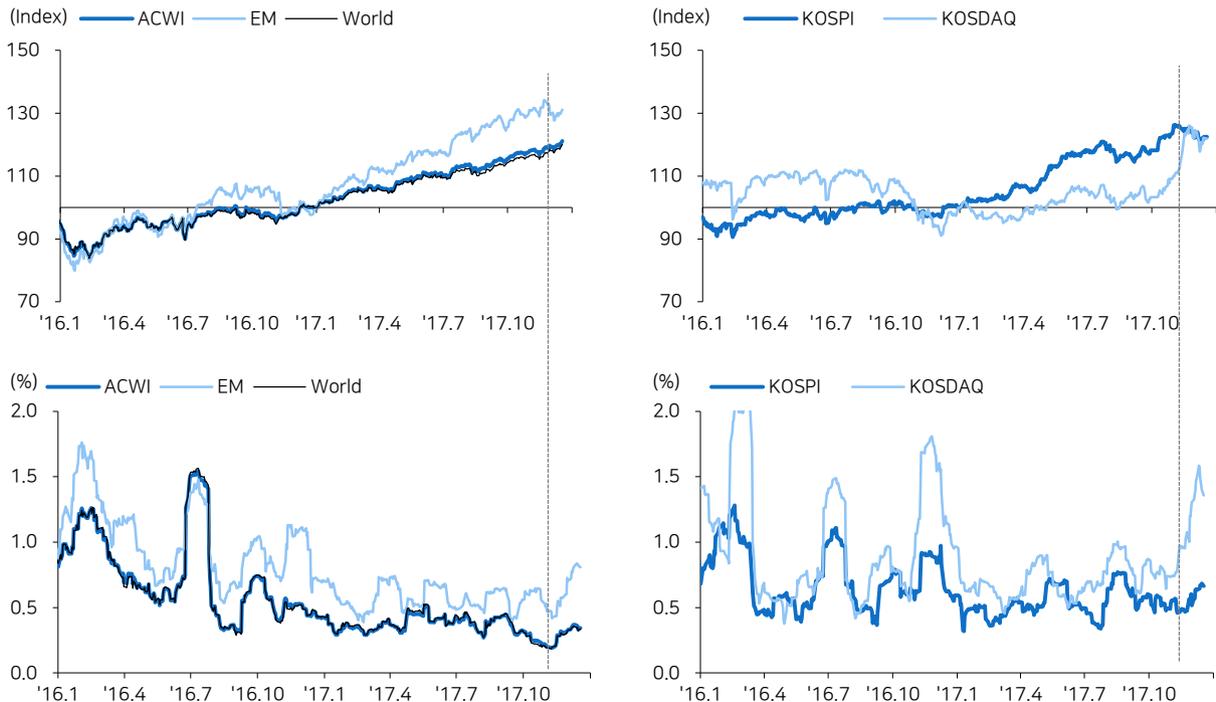
## 변동성 안정 국면, 점검할 이슈

- ✓ 11월 이후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12월 중요 이벤트 지나간 이후 안정 국면 진입
- ✓ 최근 외국인 매도세, 테크업종 투자심리 위축과 원화강세 속도 둔화 따른 차익실현. 일시적
- ✓ 불확실성 해소 국면 테크업종 반도체/장비 중심 반등, 밀레니얼 소비 관련주 강세 지속
- ✓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18~20일 진행중). 20일 요약본 발표 전 주가 흐름 눈여겨 볼 필요

### 11월 이후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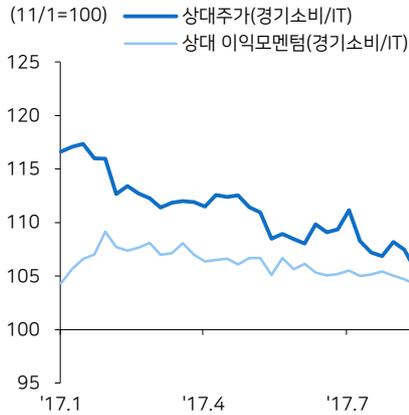
11월 이후 글로벌 증시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적인 점은 지수 변동성이 역사적 저점 수준에서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다. 11월과 12월에는 미국 세계개편안 상하원 통과, 글로벌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등 주요 이벤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고, 3분기 실적시즌 이후 대규모 섹터로테이션이 발생한 결과다.

그림1 MSCI 지역 및 KOSPI, KOSDAQ 주가지수 추이(2017년 초 =100)와 20일 변동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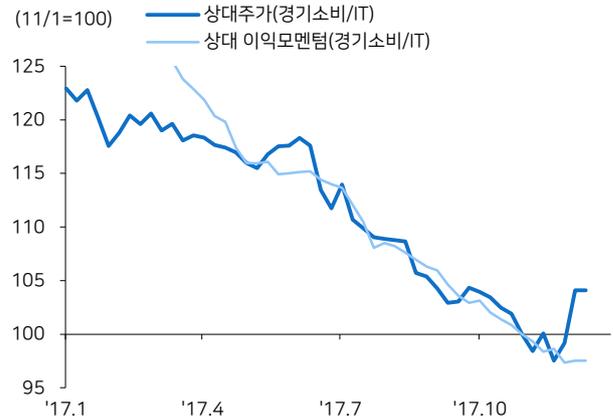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그림2 선진국 경기소비재 /IT 상대주가지수, 이익모멘텀



자료:MSCI, I/B/E/S, Thomson Reuter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신흥국 경기소비재/IT 상대주가지수, 이익모멘텀



자료:MSCI, I/B/E/S, Thomson Reuter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특히 신흥국 증시의 변동성이 컸음  
하나,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이후 보호무역주의 경계감 확산  
둘, 중국 금융규제 예고에 따른  
신흥국 전반 투자심리 위축

신흥국 증시의 20일 표준편차는 11월 초 대비 0.42%p 증가한 0.84%를 기록 중  
이다.

신흥국 증시 변동성이 선진국 대비 컸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  
후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가능성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었고, 중국 금융규  
제 강화 움직임이 중국 경기 성장세가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감 때문이었  
다. 11월 둘째주 이후 신흥국 분산투자형(GEM) 주식형 펀드향 자금유출이 2주  
연속 진행되었다. 또한 신흥국 지수 내 테크 업종(22.8%, 선진국 대비 +7%p)과  
에너지 업종(8.9%, 선진국 대비 3.1%p), 금융 업종(21.6%, 선진국 대비 4%p)  
높아 섹터 이슈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되어 있었다.

그림4 글로벌 주간 펀드플로우 추이

(백만달러)	순자산(십억달러)	12/13	12/6	11/29	11/22	11/15	11/8	11/1	10/25	10/18	10/11	10/4	9/27
<b>채권</b>	4,722.4	1,248.3	1,239.5	5,421.6	7,351.4	-851.3	6,456.2	6,900.9	6,849.8	5,793.0	5,453.7	9,493.0	8,766.2
선진채권	4,297.4	1,550.8	-967.3	4,606.5	6,157.4	-767.8	5,922.4	6,204.0	6,004.8	4,782.3	3,752.6	8,759.4	7,379.8
아시아태평양	39.5	-99.8	-34.8	-34.2	131.2	-86.5	47.6	-63.5	-63.0	-67.4	-102.1	16.2	35.6
Global	842.9	1,196.4	-402.7	1,027.9	-338.0	1,122.6	1,955.1	836.4	1,155.9	934.4	461.9	1,489.9	3,359.2
서유럽	853.6	618.2	-0.6	1,540.2	2,110.6	-515.6	1,898.6	1,425.4	162.0	-153.8	262.2	-280.2	622.1
북미	2,561.4	-164.0	-529.2	2,072.6	4,253.8	-1,288.4	2,021.2	4,005.7	4,749.9	4,069.1	3,130.6	7,533.4	3,363.0
이머징채권	425.0	-302.5	2,206.8	815.1	1,194.0	-83.5	533.8	696.9	845.0	1,010.6	1,701.0	733.7	1,386.4
아시아(일본제외)	97.8	-263.4	98.6	-295.6	34.2	-362.5	-110.6	230.8	-216.2	-128.1	487.4	87.9	210.3
GEM	297.0	98.8	2,104.8	1,160.4	1,338.6	451.7	567.6	302.1	825.5	1,200.8	1,041.9	755.6	1,019.0
EMEA	12.1	-151.9	-25.8	-52.2	-252.5	-39.3	-23.2	11.8	31.6	-34.5	-16.2	-41.3	-7.3
라틴아메리카	18.1	14.0	29.1	2.5	73.6	-133.4	99.9	152.2	204.2	-27.7	188.0	-68.6	164.4
<b>주식</b>	10,546.8	8,676.9	3,056.6	7,810.1	8,734.1	3,155.5	3,866.0	4,995.3	8,857.3	8,829.5	11,567.2	4,992.3	-2,161.2
선진주식	9,382.2	7,443.8	3,452.9	6,229.8	7,254.7	2,609.9	3,518.1	4,645.4	9,563.8	7,092.2	8,239.3	4,527.8	-3,521.1
아시아태평양	556.8	2,157.6	881.9	-39.7	2,677.5	2,231.4	1,124.5	3,052.3	-1,318.4	-4,605.9	409.8	-196.5	-1,325.9
Global	2,267.8	-510.1	1,806.0	1,180.7	3,013.5	309.6	4,762.5	3,253.6	4,192.0	3,131.8	6,617.3	3,867.5	3,427.6
서유럽	1,395.4	-2,072.7	-504.2	888.0	-454.2	-1,118.7	2,905.2	-532.5	522.6	1,081.3	855.0	1,557.4	1,981.4
북미	5,162.2	7,869.1	1,269.1	4,200.9	2,017.8	1,187.6	-5,274.1	-1,128.0	6,167.6	7,485.0	357.2	-700.6	-7,604.2
이머징주식	1,164.6	1,233.1	-396.3	1,580.3	1,479.4	545.6	348.0	349.8	-706.4	1,737.3	3,327.9	464.5	1,359.9
아시아(일본제외)	441.4	591.6	-200.8	1,184.5	421.9	798.8	373.4	-26.4	-1,156.6	-275.3	667.1	77.4	-1.3
GEM	648.1	593.8	-178.3	461.8	799.6	-41.0	-9.0	322.6	478.1	1,574.7	2,533.9	149.7	937.6
EMEA	42.4	72.9	-100.5	-113.9	-101.5	-101.3	71.7	-11.4	-38.6	-11.7	-4.2	168.7	94.4
라틴아메리카	32.7	-25.1	83.3	48.0	359.3	-110.9	-88.2	65.1	10.7	449.6	131.2	68.8	329.2

자료: EPF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MSCI 국가지수 변동성과 섹터별 시가총액 비중 비교

	ACWI	EM	China	Korea	Taiwan	India	Brazil	Russia	World	US	Europe	Japan
11월 이후 일일 수익률 표준편차(%)	0.3	0.7	1.1	0.7	0.7	0.7	1.2	1.2	0.3	1.4	0.5	0.7
에너지	6.4	8.9	3.9	2.7	4.2	17.7	11.8	51.2	5.9	5.7	6.9	1.0
금융	18.4	21.6	20.2	11.7	15.7	16.8	31.3	21.5	17.6	14.5	19.9	12.6
건강관리	9.6	2.7	2.0	6.4	0.2	5.0	1.7		11.1	13.3	11.0	6.9
자유소비재	12.2	8.4	7.7	11.0	3.5	11.9	3.1		13.1	13.0	12.4	20.4
IT	17.1	22.8	39.7	39.2	54.6	13.6	2.8		15.8	23.9	4.6	13.0
필수소비재	9.3	8.0	2.1	7.2	3.0	11.8	21.4	2.7	9.6	8.6	14.3	8.0
유틸리티	3.3	3.1	2.3	2.0		3.2	4.8	2.8	3.3	3.0	4.3	1.5
산업재	10.9	6.4	4.8	10.2	2.9	6.4	5.2		11.9	10.0	13.6	19.1
통신	4.1	6.8	9.0	2.1	6.0	3.8	3.7	2.2	3.5	2.1	4.2	7.9
소재	5.4	7.7	1.2	7.5	9.6	9.8	13.0	19.5	4.9	3.0	7.4	6.0

자료: MSCI,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신흥국 중  
대만, 한국  
가장 부진한 수익률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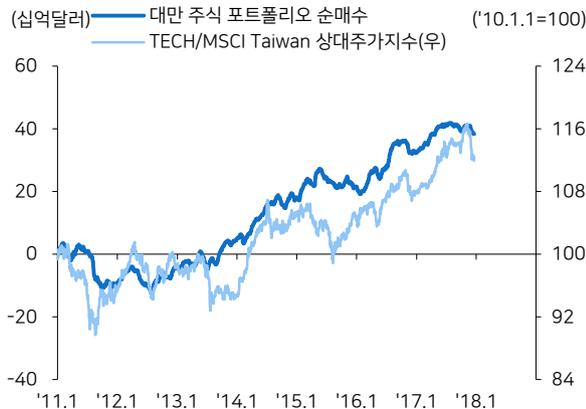
글로벌 시장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은 한국과 대만 시장이었다. 각각 -2.5%, -4.8%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테크 업종 부진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대만과 한국의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컸던 이유도 테크업종 투자심리 위축과 무관하지 않다.

그림1 11/1~12/18일 MSCI 국가지수 섹터별 퍼포먼스 비교

(%)	글로벌	선진	이머징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대만	인도	브라질	러시아
전체	3.0	3.3	1.0	4.4	-0.6	2.9	1.3	-2.5	-4.8	0.4	-2.3	5.4
에너지	1.7	1.9	0.4	2.2	0.0	16.7	2.1	-2.7	9.0	-2.5	-8.7	6.2
금융	3.6	3.7	3.2	5.6	0.1	4.2	0.3	0.6	4.0	1.2	-4.1	11.6
건강관리	2.8	2.8	3.1	3.2	-1.0	3.8	8.3	8.0	-19.5	-6.0	-4.6	NA
자유소비재	5.0	5.3	1.5	7.2	-1.5	4.1	2.0	1.4	-7.1	5.7	-6.1	NA
IT	2.1	2.8	-1.2	3.1	-0.9	0.9	3.9	-6.1	-8.5	4.6	4.5	NA
필수소비재	5.2	5.2	5.8	7.5	-0.2	7.2	5.6	8.8	3.8	3.8	-1.1	-5.5
유틸리티	-1.5	-1.5	-1.7	-1.2	-3.4	-4.2	-7.2	0.5	NA	2.7	-5.7	-1.6
산업재	2.3	2.6	-1.4	4.4	-2.3	2.7	-5.8	-6.5	-0.7	-3.9	-1.8	NA
통신	4.0	4.6	1.2	11.3	0.4	-5.2	-2.2	3.7	1.2	-1.2	0.6	-12.3
소재	2.2	2.2	1.8	1.6	0.9	1.8	-3.9	0.0	2.2	-5.5	8.5	0.6

자료: MSCI,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대만 외국인 누적 순매수, 테크 상대주가지수 비교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한국 외국인 누적 순매수, 테크 상대주가지수 비교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11월 이후 한국 증시 누적수익률  
 KOSPI -1.78%  
 KOSDAQ 10.37%

11월 이후 KOSPI 지수가 부진했던 이유는 테크 섹터의 변동성이 커졌던 탓도 있지만 삼성중공업(-40.0%) 이후 산업재 섹터가 동반 약세를 보였고, 예상 보다 비둘기과적이었던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원화 강세 추세가 둔화되며 시가총액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했다. 또한 KOSDAQ 기업실적 호조, 정부 KOSDAQ 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대금이 KOSDAQ 시장으로 쏠렸던 점도 지수 부진의 이유로 작용했다.

그림4 KOSPI, KOSDAQ 섹터별 지수 상승률/하락률 비교 : 11월 이후 누적 수익률

(등락률%)	전체	산업재	IT	에너지	경기소비	금융	소재	유틸리티	건강관리	통신	필수소비재
KOSPI	-1.78	-5.73	-4.32	-2.62	-1.34	-0.04	0.94	1.09	3.04	4.96	6.18
대형	-2.75	-6.70	-4.78	-2.97	-2.02	-0.41	-0.24	0.20	1.03	4.89	8.26
중형	1.69	-2.84	-2.44	4.40	1.04	-0.30	5.20	8.23	6.72	NA	4.60
소형	1.62	1.84	6.63	10.74	-0.97	4.22	0.76	-1.29	6.27	20.94	-3.22

(등락률%)	전체	건강관리	금융	필수소비재	소재	IT	경기소비	통신	유틸리티	산업재	에너지
KOSDAQ	10.37	18.71	17.68	13.42	11.03	9.07	5.60	3.92	2.10	1.44	-0.83
대형	8.88	12.86	4.64	-9.37	22.84	3.34	7.40	9.93	NA	0.79	NA
중형	9.62	17.17	-1.59	43.24	3.29	9.65	3.71	-0.03	6.64	1.82	-23.94
소형	7.82	4.83	43.63	-0.88	-0.91	11.88	3.42	NA	-2.16	1.97	7.67

그림5 KOSPI, KOSDAQ 섹터 내 지수상승/하락 기여도 비교 : 11월 이후 누적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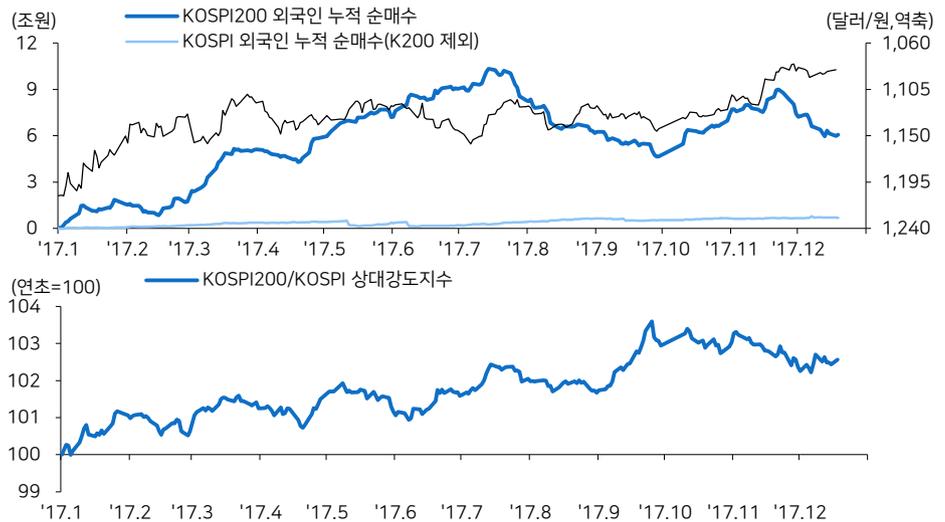
(기여도%)	전체	IT	산업재	경기소비	에너지	금융	소재	유틸리티	건강관리	필수소비재	통신
KOSPI	-1.78	-1.41	-0.80	-0.18	-0.07	-0.01	0.08	0.02	0.12	0.15	0.11
대형	-2.19	-1.48	-0.61	-0.21	-0.07	-0.04	-0.02	0.00	0.03	0.10	0.11
중형	0.18	0.01	-0.09	0.04	0.00	0.00	0.09	0.02	0.07	0.04	0.00
소형	0.02	0.02	-0.01	-0.01	0.00	0.00	0.01	0.00	0.02	-0.01	0.00

(기여도%)	전체	건강관리	IT	경기소비	소재	필수소비재	금융	산업재	통신	에너지
KOSDAQ	10.37	5.64	2.91	0.77	0.47	0.34	0.23	0.05	0.02	-0.02
대형	3.55	2.34	0.29	0.50	0.41	-0.04	0.02	0.02	0.02	0.00
중형	2.29	0.82	0.95	0.12	0.03	0.36	-0.01	0.05	0.00	-0.03
소형	1.51	0.07	1.15	0.09	-0.02	0.00	0.21	0.00	0.00	0.02

주: 지수산정 시가총액으로 산정, 신규 상장종목 제외해 사이즈 간 지수기여도 합산과 실제 지수상승률 일치하지 않음  
 자료: WiseF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KOSPI 외국인 누적 순매수, 원달러환율 추이와 K200/KOSPI 상대강도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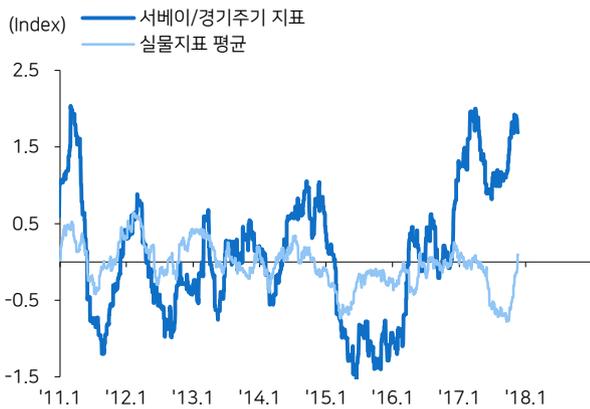
자료: WiseF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변동성 장세 이후 주목할만한 변화들

#### 체감-실물 지표간 괴리도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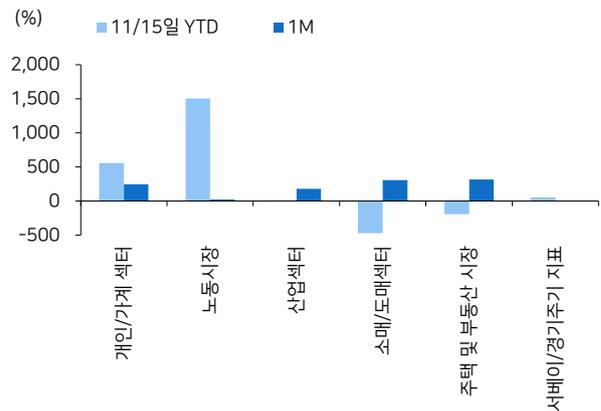
4분기 들어 미국 경제에 나타난 변화는 실물 경기 지표의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강세장이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는 실물 지표가 개선세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1월 중순 이후 발표된 실물 지표가 잇따라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특히 소매/도매섹터와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의 개선세가 확인되었다.

그림7 미국 경기서프라이즈 지수 : 실물 vs. 서베이/경기



주: 실물지표 평균 - 개인/가계, 노동, 산업, 소매/도매, 주택/부동산 평균

그림8 항목별 경제서프라이즈지수 변화율(1M, 11/15일 YTD)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연준의 신중한 긴축기조를 재확인시켜주었던 12월 FOMC

12월 FOMC에서 연준은 경기회복을 근거로 25bp 금리인상을 진행했지만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이후 반락했다. 연준의원 중기 정책금리 전망치의 상단이 0.5%p 하향 조정되었고, 2018년 PCE Inflation, Core PCE Inflation의 상단과 하단이 모두 0.1%p 하향 조정되며 중기적으로 연준의 긴축 속도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림1 12월 FOMC 연준의원 경제지표 전망치

Variable	Median <sup>1</sup>					Central tendency <sup>2</sup>					Range <sup>3</sup>				
	2017	2018	2019	2020	Longer run	2017	2018	2019	2020	Longer run	2017	2018	2019	2020	Longer run
Change in real GDP	2.5	2.5	2.1	2.0	1.8	2.4-2.5	2.2-2.6	1.9-2.3	1.7-2.0	1.8-1.9	2.4-2.6	2.2-2.8	1.7-2.4	1.1-2.2	1.7-2.2
September projection	2.4	2.1	2.0	1.8	1.8	2.2-2.5	2.0-2.3	1.7-2.1	1.6-2.0	1.8-2.0	2.2-2.7	1.7-2.6	1.4-2.3	1.4-2.0	1.5-2.2
Unemployment rate	4.1	3.9	3.9	4.0	4.6	4.1	3.7-4.0	3.6-4.0	3.6-4.2	4.4-4.7	4.1	3.6-4.0	3.5-4.2	3.5-4.5	4.3-5.0
September projection	4.3	4.1	4.1	4.2	4.6	4.2-4.3	4.0-4.2	3.9-4.4	4.0-4.5	4.5-4.8	4.2-4.5	3.9-4.5	3.8-4.5	3.8-4.8	4.4-5.0
PCE inflation	1.7	1.9	2.0	2.0	2.0	1.6-1.7	1.7-1.9	2.0	2.0-2.1	2.0	1.5-1.7	1.7-2.1	1.8-2.3	1.9-2.2	2.0
September projection	1.6	1.9	2.0	2.0	2.0	1.5-1.6	1.8-2.0	2.0	2.0-2.1	2.0	1.5-1.7	1.7-2.0	1.8-2.2	1.9-2.2	2.0
Core PCE inflation <sup>4</sup>	1.5	1.9	2.0	2.0		1.5	1.7-1.9	2.0	2.0-2.1		1.4-1.5	1.7-2.0	1.8-2.3	1.9-2.3	
September projection	1.5	1.9	2.0	2.0		1.5-1.6	1.8-2.0	2.0	2.0-2.1		1.4-1.7	1.7-2.0	1.8-2.2	1.9-2.2	
Memo: Projected appropriate policy path															
Federal funds rate	1.4	2.1	2.7	3.1	2.8	1.4	1.9-2.4	2.4-3.1	2.6-3.1	2.8-3.0	1.1-1.4	1.1-2.6	1.4-3.6	1.4-4.1	2.3-3.0
September projection	1.4	2.1	2.7	2.9	2.8	1.1-1.4	1.9-2.4	2.4-3.1	2.5-3.5	2.5-3.0	1.1-1.6	1.1-2.6	1.1-3.4	1.1-3.9	2.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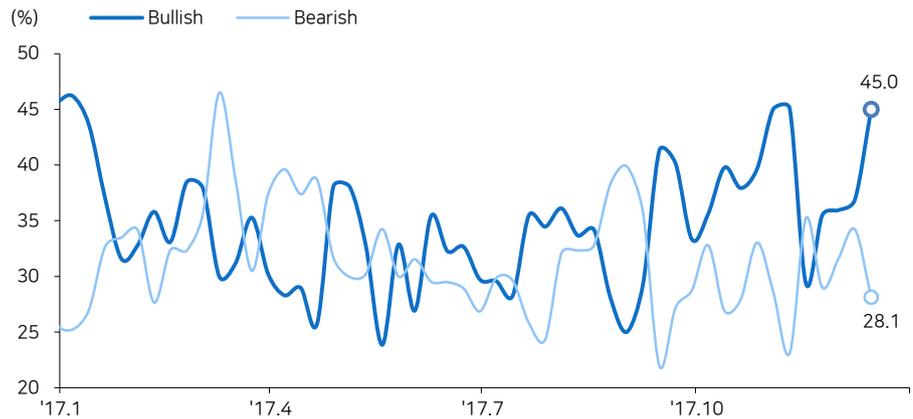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12/13 전미투자자협회(AAII)  
 향후 6개월 주식시장 전망 서베이  
 상승(Bullish) 45.0%  
 중립(Neutral) 26.9%  
 하락(Bearish) 28.1%

미국 경제 지표 호조 속 12월 세제개편안 이슈, 글로벌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던 이벤트가 지나갔고, 이후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개선되었다.

13일 전미투자자협회(AAII)가 투자심리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6개월간 시장 상승을 전망하는 투자자의 비중은 45.0%로 5주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하락을 전망하는 투자자 비중은 28.1%로 역사적 평균(30.5%)를 크게 하회했다.

그림1 전미 투자자 협회 서베이 결과: Bullish vs. Bearish



자료: AAII,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NASDAQ 사상 최고치 기록  
 28일 장중 7,000pt 돌파하기도

지난 15일 미국 공화당은 최종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공화당 내 의견 합치로 19일-20일(현지시간) 하원 통과가 유력해진 상태다. 미국 세제개편안이 상원에서 연내 통과될 경우 2월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글로벌 증시 내 투자심리가 급격히 개선되었다. 특히 11월 조정세를 보였던 나스닥 지수가 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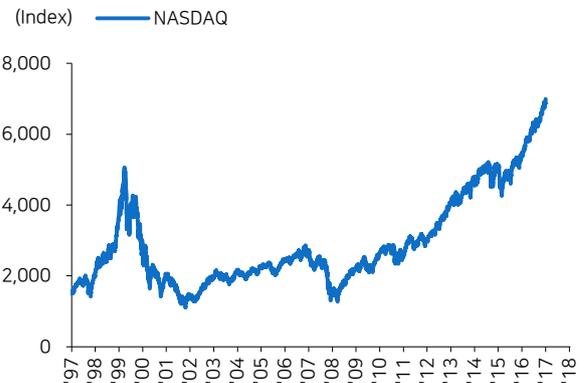
그림2 세제개편안 비교: 최종안 vs. 기존안

Hover over the marks for details  
SOURCE:

	House	Senate	Final bill
All tax cuts are permanent	✓	✗	✗
Curbs mortgage interest deduction	✓	✗	✓
Deduction for "pass through" income	✗	✓	✓
Delays cuts in corporate tax rates	✗	✓	✗
Drops most state, local tax deductions	✓	✓	✓
Fewer individual brackets	✓	✗	✗
Fully repeals the Alternative Minimum..	✓	✗	✓
Increases child tax credit	✓	✓	✓
Maintains medical expenses deduction	✗	✓	✓
Raises standard deduction	✓	✓	✓
Repeals estate tax	✓	✗	✗
Repeals the health care mandate	✗	✓	✓
Taxes graduate student incom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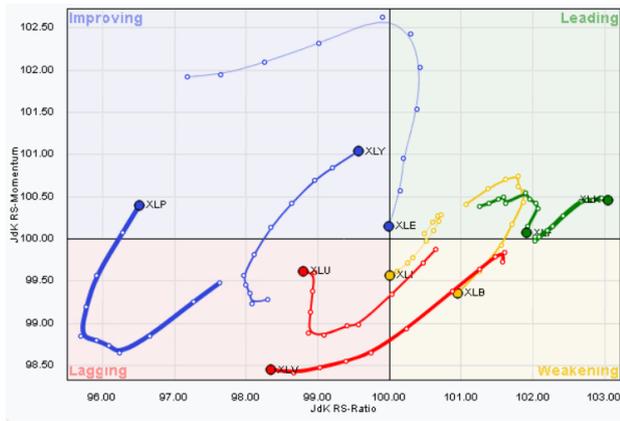
자료: CNBC,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나스닥 사상 최고치 기록



자료: Thomson Reuters,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최근 10영업일간 S&P500 섹터별 상대강도 변화 : 테크, 금융업종 상대강도 개선, 경기소비 강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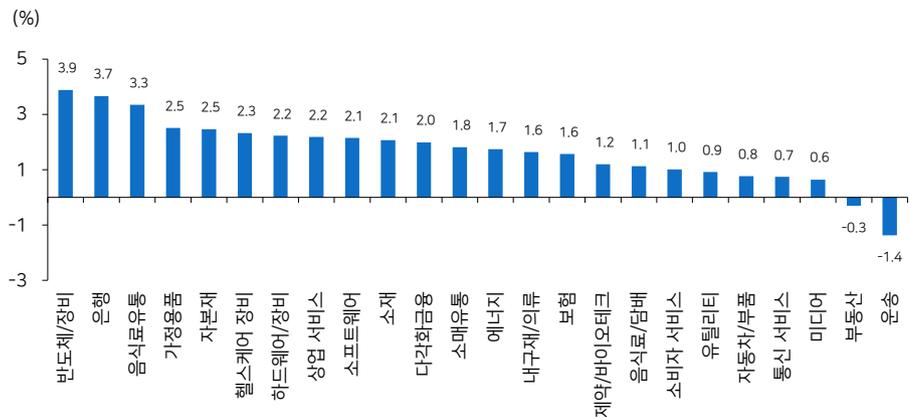
10 trading days ending Dec 18, 2017

chart	visible	tail	symbol	name	sector	industry	price	%chg
#	✓	■	XLK	Technology Select Sector SPDR Fund			85.13	8.1
#	✓	■	XLF	Financial Select Sector SPDR Fund			26.06	7.9
#	✓	■	XLP	Consumer Staples Select Sector SPDR Fund			58.85	5.0
#	✓	■	XLY	Consumer Discretionary Select Sector SPDR Fund			98.85	8.7
#	✓	■	XLE	Energy Select Sector SPDR Fund			89.25	2.3
#	✓	■	XLB	Materials Select Sector SPDR Fund			59.95	3.2
#	✓	■	XLI	Industrial Select Sector SPDR Fund			75.05	4.7
#	✓	■	XLV	Health Care Select Sector SPDR Fund			83.74	2.0
#	✓	■	XLU	Utilities Select Sector SPDR Fund			54.41	1.4
#			\$SPX	S&P 500 Large Cap Index			2890.16	5.4

자료: Stockcharts.com,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테크주 반등 주도하는 산업군 :반도체/장비

그림5 NASDAQ 업종별 상승률 :2영업일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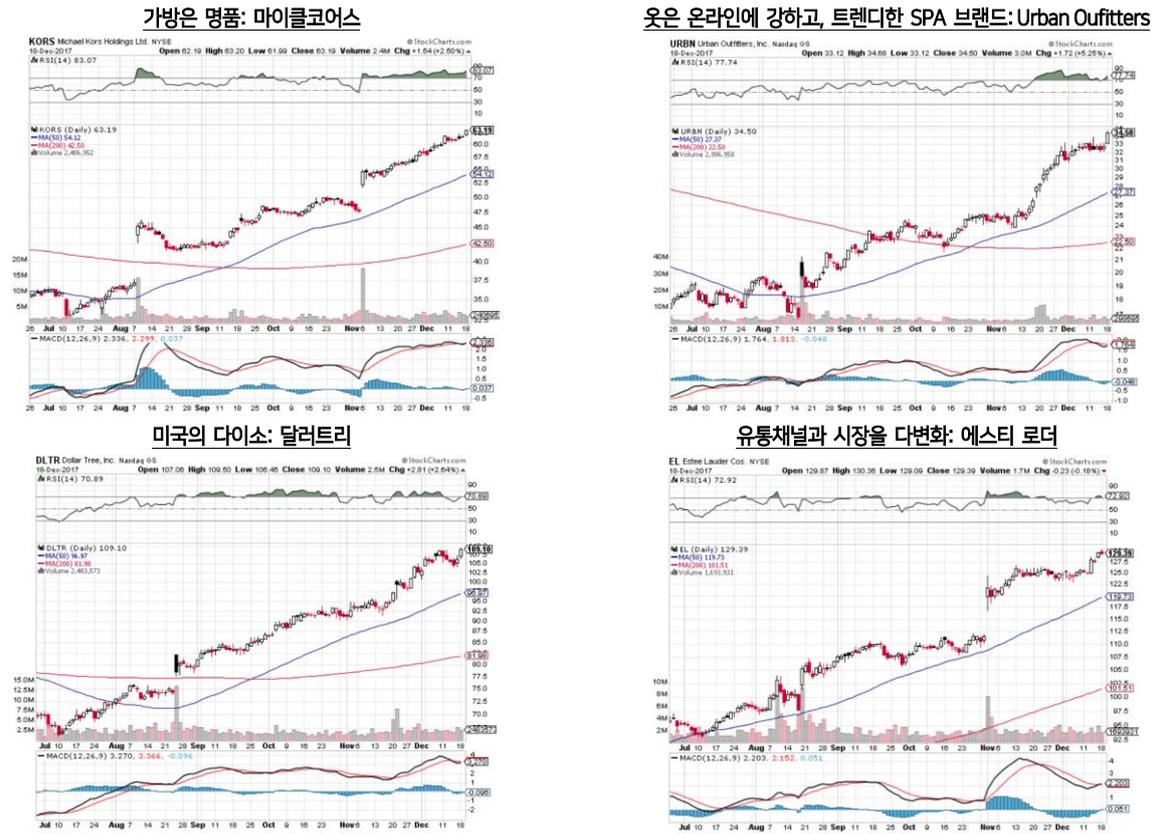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소비재 강세 지속은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소비 패턴 변화와 관련 가방은 명품 vs. 옷은 SPA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소비재 주식들은 모두 새로운 소비 주체로 부상한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패턴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Edited는 미국 내 5000여개 패션 소매상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밀레니얼 세대들은 의류는 저렴한 패스트패션 브랜드에서 구매하고 핸드백과 액세서리는 명품 럭셔리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성비'를 따지는 가치소비, '한정판'에 열광하는 심리, 'SNS' 등을 통해 공유하는 소비 패턴이 실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림6 밀레니얼 소비 패턴과 관련주 주가 추이



자료: Stockcharts.com,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중앙 경제공작회의

중국 중앙 경제공작회의가 18일부터 3일간 진행중이다. 중국 중앙 경제공작회의는 19차 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산당 지도부의 회동인 동시에, 내년도 중국 경제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회의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번 회의는 중국 경제정책이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분기점으로 중국의 부채문제와 환경문제, 신산업 정책, 균형 성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표1 CSI300 종목 중 최근 2영업일 누적 수익률 상위 5개 종목, 하위 5개 종목

티커	이름	산업그룹	내용	수익률(%)
603799 CH Equity	Zhejiang Huayou Cobalt Co Ltd	소재	코발트 생산업체	-5.57
600827 CH Equity	상하이 바이오텔 집단	식품 & 기본 식료품 소	백화점 및 슈퍼마켓 운영	-4.61
603160 CH Equity	후이딩 과기	반도체 & 반도체 장비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3.65
000063 CH Equity	ZTE 통신	기술 하드웨어 & 장비	광통신 장비 개발업체	-3.62
002081 CH Equity	쑤저우 골드 멘티스 건설장식	자본재	공공건물 설계 및 건설업체	-3.25
002572 CH Equity	썬페이아 홈 콜렉션	내구 소비자재 & 의류	맞춤식 세트가구 개발, 생산, 판매	6.89
601336 CH Equity	신화 생명보험	보험	생명, 상해, 건강보험 상품	7.23
600188 CH Equity	엔저우 광업	에너지	채탄, 석탄 전처리 및 조작처리. 철도교통서비스	7.50
000858 CH Equity	우량에 이빈	식품, 음료 & 담배	주류 제조 및 판매. 자회사 카분 및 유산 제조	7.50
000983 CH Equity	산서 시산 석탄 & 전력	에너지	석탄 채굴 및 공정처리 업체. 전력발전	9.50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12월 2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중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12월 2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12월 2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정다미) 동 자료는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중 제 2장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 공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추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